

국내 피아노페다고지 전공 석사학위논문 연구주제 조사연구

권 수 미*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피아노페다고지 전공이 처음으로 개설된 1998년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 대학원 졸업생들이 이수과정으로 발표한 학위 논문들의 연구 주제들을 조사해 봄으로써,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 주제의 유형을 분석하고 앞으로 한국 피아노페다고지학계가 나아가야 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국내 피아노페다고지 전공 대학원 총 9개교 10개 대학원에서 지난 2000년 이후부터 2010년 12월 현재까지 발표된 석사학위 논문 총 98개를 수거하여 연구주제를 10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빈도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음악교수법 및 학습이론; 2. 피아노교수문헌; 3. 음악성; 4. 피아노커리큘럼개발; 5. 피아노테크닉; 6. 피아노학습자; 7. 피아노페다고지훈련; 8. 피아노연주; 9. 피아노교사; 10. 테크놀로지. 피아노 페다고지의 학문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연구주제의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주제어 : 피아노페다고지, 피아노교수학, 피아노교수법, 논문연구주제

차 례

I. 도입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제한점

II. 문헌연구

1. 피아노페다고지 문헌의 발전
2. 피아노 페다고지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에 대한 문헌연구

III. 연구의 결과 및 분석

IV. 요약 및 제언

* 한세대학교 음악대학 초빙교수

I. 도 입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피아노를 보다 예술적이고 과학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피아노 페даго지가 학문적으로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피아노 페даго지에 대한 관심은 콘서바토리나 음악대학에 전공학과가 개설되는 것은 물론, 미국음악교사협회(American Music Teacher), 클라비어 컴페니언(Clavier Companion), 유럽피아노교사저널(European Piano Teacher's Journal), 그리고 피아노 페даго지 포럼(Piano Pedagogy Forum) 등에서 다양한 학술지와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전미음악교사협회(Music Teachers National Association), 피아노 페даго지 컨퍼런스(National Conference of Keyboard Pedagogy), 세계 피아노 페даго지 컨퍼런스(World Piano Pedagogy Conference), 유럽 피아노 교사협회 컨퍼런스(European Piano Teachers' Association Conference), 그리고 호주 피아노 페даго지 컨퍼런스(Australian Piano Pedagogy Conference) 등 과 같은 전문 학술 단체의 활발한 활동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국내에 있어서도 피아노 페даго지에 대한 관심은 지난 1990년대 말 부터는 국내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피아노 페даго지 전공의 개설로 표출되기 시작하여, 2011년 1월 현재, 총 9개교 10개 대학원에 피아노교수학 전공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학교를 살펴보면 대학에 따라 일반대학원 혹은 특수대학원에 피아노 페даго지 전공이 도입되어, 각 대학원의 소속에 따라 교과과정 운영이나 졸업 이수 과제 등에 차이를 두며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피아노 페даго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되는 가운데, 막상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아노 페даго지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피아노 페даго지란?: 피아노 교사훈련과정인가?: 초급

수준의 교재학습과정인가?; 피아노 연주 문헌을 연구하는 과정인가?; 피아노 연주 능력이 부족한 음대생들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인가? 등등 피아노 지도와 학습에서 연구되어야 할 방대한 문헌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려하지 않고 단순한 대답을 요구하거나 막연한 질문만을 던져대고 있다. 이에 피아노 교육자들은 이 분야에서 다루어져야하는 연구주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피아노 페다고지에 대한 올바른지 못한 인식을 바로 잡고, 더 나아가 학문으로서 대학에 제대로 뿌리 내려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를 이끌고 나아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이 처음으로 개설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 대학원 학생들이 졸업을 위한 이수과정으로 발표한 학위 논문들의 연구 주제들을 조사해 봄으로써,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 주제의 유형을 분석하고 앞으로 한국 피아노 페다고지 학계가 나아가야 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국내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 대학원에서 발표된 석사학위 논문 연구 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이 개설된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수원대학교 피아노페다고지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페다고지대학원,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한세대학교 피아노페다고지대학원,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가나다 순), 총 9개교 10개 대학원에서 지난 2000년 이후부터 2010년 12월 현재까지 발표된 석사학위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연구대상을 수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논문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피아노 페다고지에 관련된 주제어(피아노학습, 피아노교사, 피아노전공, 피아노교재, 피아노교수학, 피아노교수법)와 위 9개교 10개 대학원명을 상세정보에 입력한

후 구해진 논문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총 98개 석사 학위 논문이 수집되었다.

수거된 연구대상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메이창(Meichang, 2010)이 지난 50년간 미국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 대학원에서 발표한 학위논문의 주제와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연구대상의 정보기입과 연구주제목록을 개발하였다.

우선, 수거된 연구대상의 정보를 기입하기 위하여 각 논문마다 1. 번호, 2. 대학원명, 3. 논문발표연도, 4. 연구자명, 5. 논문제목 6. 연구대상 7. 연구방법으로 분류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다음, 메이창(2010)은 그녀의 연구에서 연구주제목록을 12개의 대주제로 분류를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들 중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다양한 현대사회에서의 피아노지도'에 관한 주제와 '피아노연습'에 관한 주제에 해당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녀의 대주제 목록 중 이 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연주주제를 대분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주제목록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음악교수법 및 학습이론; 2. 피아노교수문헌; 3. 음악성; 4. 피아노커리큘럼개발; 5. 피아노테크닉; 6. 피아노학습자; 7. 피아노페다고지훈련; 8. 피아노연주; 9. 피아노교사; 10. 테크놀러지.

각 대분류 주제 목록 아래 세부항목이 필요한 경우 중분류와 소분류로 연구주제어를 추가로 세분화하여 코딩하였으며, 그 결과를 빈도분석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학원 학생들의 학위논문에서 다루어진 주제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 때 연구 주제어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 학위논문의 연구자가 기재한 연구주제어(keyword)와 각 연구목차의 문헌연구에 실린 주제어를 복수 체크하여 코딩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에 해당된 총 98개의 학위논문들이 각 연구마다 복수의 연구주제어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총 10개의 대분류 항목에 186개의 연구가 코딩되었다.

3. 연구의 제한점

지난 1998년 국내에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이 대학원에 개설된 이후, 현재 9개교 10개 대학원에서 졸업한 학생들의 현황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 2008년 실시한 정완규, 권수미의 우리나라 대학원의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 운영과 교과과정 비교 조사연구에서 각 대학원별 2007년까지 졸업한 학생 수를 조사하긴 하였으나, 응답자들이 해당 학교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꺼려 무응답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원에서 배출된 졸업생 수와 논문 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학교 음대 행정실에 개별적으로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무응답이나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을 받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수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이 첫 졸업생을 배출한 2002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 석사학위논문을 수거하였다. 이 때, 공교롭게 추가적으로 발견한 사실은, 논문을 발표한 졸업생만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것이 아니라, 논문을 발표하지 않고도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들의 명단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 대학원 졸업생의 수를 예측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여, 9개교 10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고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졸업생의 수는 총 304명이었으나, 학위논문을 발표한 수는 98명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각 해당 대학원에서 학위논문을 발표한 졸업생과 학점이수를 통하여 졸업한 학생들을 국회도서관에 등록해 놓지 않았을 경우,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위의 주제가 포함되지 않은 학위논문 또한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주제어를 포함하고 있으나 일반음악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제외하였다.

Ⅱ. 문헌연구

1. 피아노 페다고지 문헌의 발전

최근 20-30년 동안 피아노 페다고지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는 노력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chons, 2005; Grausam, 2005; Montandon, 1998; 정완규, 권수미, 2008a & 2008b). 피아노 페다고지 분야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다양한 연구주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분야에서 문헌이 역사적으로 어떤 변천이 이루어졌는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피아노 페다고지 문헌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하프시코드부터 피아노로 건반악기가 진화함에 따라 시대별로 연주주법이 변천하는데서 기인하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초의 피아노 페다고지 관련문헌인 동시에 많은 영향을 준 논문은 쿠프랭(F. Couperin)이 저술한 『클라브상 터치 기법(L'Art de toucher le clavecin)』(1716)과 C.P.E. 바흐가 저술한 『올바른 피아노 연주법, (Versuch über die wahre Art das Clavier zu spielen)』(1753)이다. 이 두 문헌에서는 당대의 건반악기를 연주하는데 요구되는 학습능력인, 예를 들어, 대위법, 화성, 통주저음, 즉흥연주, 반주, 장식음, 즉흥연주, 운지법 등에 대한 내용을 책 전반에 걸쳐 다루고 있다

피아노 제작과 개발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19세기 이후부터는 음악적이고 기술적인 연주능력 습득을 위한 관련 문헌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며 피아노 제작자인 클레멘티(M. Clementi)는 1803년 『Introduction to the Art of Playing the Pianoforte』를 저술하였다. 이 논문에서 클레멘티는 다수의 테크닉 연습용 작품을 제시하는 동시에 건반악기의 진화에 따라 개발된 새로운 연주주법인 레가토 주법이나 약간의 팔의 움직임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손가락의 유연한 운동 등 피아노 연주주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또 다른 19세기에 피아노 페다고지에 큰 영향을 끼친 문헌은 3권으로 이루어진 홈멜(1828)의 『A Complet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urse of

Instructions on the Art of Playing the Piano Forte Commencing with the Simplest Elementary Principles and Including Every Information Requisite to the Most Finished Style of Performance』이다. 이 저서에는 2,000개가 넘는 짧은 연습곡을 통하여 연주기술, 운지법, 장식음 외에 연주에 필요한 연주 자세에 관한 제안을 서술하고 있다(Uszler, Gordon & Smith, 2000).

19세기 피아노 페다고지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또 다른 작품은 칼 체르니(1839)의 4권으로 이루어진 연습곡들이다. 체르니의 연습곡들은 손가락 훈련을 통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였다. 체르니는 다섯 손가락 모두 동등하게 독립적이고 강해야 하며, 연주 시 둥근 모양으로 만들고 각 손가락을 높게 들어 올리며 건반을 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손가락 이외에는 움직이지 않고 특히 손목은 수평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지극히 손가락 학파의 대표적인 피아노 연주 방법을 반영하는 연주주법이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들어, 손가락의 독립과 힘으로만 피아노를 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새로운 연주법을 제안한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브라이하우프트(Breithaupt)의 『자연스런 피아노테크닉(Die Natürliche Klaviertechnik)』(1905)가 있다. 브라이하우프트는 손가락 움직임이외에 팔, 어깨, 상체의 유연함이 수반되어야 신체의 불필요한 긴장감을 줄여 연주를 수월히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20세기 초반, 음색, 무게조절, 이완, 로테이션과 같은 건반 연주 주법이 피아노 연주의 주요 관심사였을 당시, 오르만(Ortmann, 1925)은 『The Physical Basis of Piano Touch and Tone』를 발표하며, 피아노 연주의 생리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둥글게 건반위에 올려놓고 타건하기 보다는 손가락을 가능한 길게 뻗은 채로 건반위에 올려놓고 타건하는 것이 손가락 관절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특히 'singing tone' 노래하는 음색을 만들어 내는 데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 현대의 피아노 페다고지는 이렇게 다양한 방

법으로 역사적 문헌들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피아노 악기와 피아노 연주의 많은 발전으로 인해 피아노 지도에 있어서도 새로운 측면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피아노 학습대상의 확대로 미취학 학습자, 성인 학습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습자 등 다양한 연령과 특성에 적합한 피아노 지도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테크놀러지의 발전은 피아노 교사와 학생들에게 새로운 악기 및 학습 도구들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드물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이전에는 대학교나 공립학교 피아노 수업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룹 피아노 지도가 이제는 개인피아노 지도에도 흔히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또, 새로운 피아노 레퍼토리의 개발로 재즈나 대중음악을 접목한 피아노 작품들이 피아노 교재에 빈번하게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이전에는 주로 연주와 기술 개발을 위한 피아노 지도를 강조한 반면 최근에는 통합적인 음악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초견, 화성, 전조, 청음, 기능적이고 음악적인 창의성 개발 및 즉흥연주 개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지도 철학이 변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피아노교육을 반영하듯, 최근 20-30년 동안 새로운 영역의 피아노 지도를 위한 포괄적인 피아노 페다고지 문헌이 많이 출판되었다. 이들은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생들을 위한 참고서로도 빈번히 사용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문헌은 다음과 같다: 『피아노교수법의 최고의 길잡이(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Uszler Gordon, Smith, 2000); 『창의적인 피아노지도(Creative Piano Teaching)』(Lyke, Enoch, Haydon, 1987); 『성공적인 피아노교수법(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Bastien, 1977); 『질문과 대답: 피아노교사들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Questions and Answers: Practical Advice for Piano Teachers)』(Clark, 1992). 이와 같은 문헌들의 도움으로 피아노 교육은 점차 활기를 띠면 전문성을 갖춘 피아노교사의 양성으로 이어지기 된다.

미국의 음악대학에서는 1950년대부터 피아노 페다고지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후, 특히 1980년 초반부터는 학과 및 교과목 개설이 활기를 띠었다(Lyke, 1996; Montandon, 1998; Uszler & Larimer, 1984). 우즐러

(Uszler)와 래리머(Larimer)는 National Conference on Piano Pedagogy에서 학부과정(1984)과 대학원과정(1986)의 피아노 페даго지 전공을 위한 교과과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학습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1) 학습이론과 적용; 2) 피아노 지도에 관련된 문헌, 교재 및 자료; 3) 전문 피아노교사의 관찰; 4) 그룹과 개인 피아노 지도; 5) 피아노 지도안 개발; 6) 피아노지도 실습. 이 지침서에서는 그 외에 음악대학 및 대학원에서 피아노 페даго지 전공을 운영할 때 갖춰야 할 요소들과 현실에서 직면하게 되는 질문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피아노 교수학 전공 대학원의 교과과정 개설에 있어서도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2. 피아노 페даго지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에 대한 문헌연구

우즐러와 래리머가 피아노 페даго지 전공 운영교과과정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한 이후(1984, 1986), 피아노 페даго지에 관한 연구가 학위논문, 미출판 논문, 저널, 학술지등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Grausam, 2005). 피아노 페даго지 분야의 주요 연구들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 학생들을 위한 레퍼토리, 테크닉, 음악성, 이론, 자료, 연습, 연주, 피아노 프로그램, 교사의 자질 등에 관련된 피아노 지도와 학습 분야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피아노 페даго지 관련 연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 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를 파악한 포괄적인 연구는 상당히 드물다. 최근에 이루어진 피아노 페даго지 관련 연구들의 주요 주제와 특징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몬탠돈(Montandon, 1998)과 우즐러(1992),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메이창(2010)의 연구가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몬탠돈(1998)은 전미 피아노 페даго지 학술지(Proceedings of National Conference on Piano Pedagogy)에 1981년부터 1995년 사이에 실린 아티클 282개를 분석하면서 피아노 페даго지에서 다

루어지는 연구주제의 동향에 관한 문헌을 제공하였다. 이 때 그는 연구주제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31개 주제로 세부 항목을 분류하였다:

- 1) 개인지도 교사; 2) 학습이론; 3) 연습방법지도; 4) 경력개발; 5) 그룹피아노/클라시피아노; 6) 피아노; 7) 테크놀러지; 8) 피아노산업; 9) 평가; 10) 피아노자료; 11) 교수법; 12) 연주기술; 13) 피아노문헌; 14) 의학적인 문제점; 15) 비즈니스; 16) 학습자와 교사간의 관계; 17) 피아노 페다고지와 음악교육간의 관계; 18) 피아노 페다고지 연구; 19) 피아노연주전공과 피아노 페다고지 학생간의 학습참여도; 20) 행정; 21) 피아노 페다고지의 역사; 22) 학습목표; 23) 피아노연주교사와 피아노지도교사의 프로필과 자격; 24)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 커리큘럼 프로그램; 25) 피아노 페다고지 자격증 프로그램; 26) 피아노 페다고지 교과목개요; 27) 피아노연주전공 커리큘럼 프로그램; 28) 연주전공; 29) 피아노학생; 30) 인턴십과 개인교습소; 31) 피아노전공(Montandon, 1998, p. 41-44).

연구분석을 통하여 문헌들은 NCPP의 학술대회에서 가장 빈번히 연구된 주제는 피아노 연습방법, 페다고지 교과과정, 테크놀러지, 학습이론, 문헌 그리고 피아노 연주에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연구대상의 상당수가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기인한 아티클이나 리포트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깊이 있는 학문적인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두 번째로, 우즐러(1992)도 피아노지도에 관련된 연구를 총체적으로 실시하여 피아노지도에 관련된 최근 연구의 동향과 흐름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 1) 피아노 테크닉 지도는 단지 손가락, 손, 팔, 그리고 근육만 연관지어 지도하기보다는 두뇌와 상호 조절을 강조하여 지도하는 추세이다.
- 2) 피아노페다고지 전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증가하는 추세이다.
- 3) 피아노 지도와 학습에 있어서 새로운 테크놀러지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 4) 피아노 학습 인구 중 미취학 학생과 성인학습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Uszler, 1992, p.584).

세 번째로 메이창(2010)은 지난 1951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 대학원에서 발표되어진 석사와 박사학위 논문 총 457개의 연

구주제와 논문의 구조를 분석한 연구를 발표하여 피아노 페даго지 분야 연구의 발자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 메이창의 연구는 본 연구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그녀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를 진행해가며 언급하기로 하겠다.

몬텐돈과 우즐러 그리고 메이창의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진 피아노 페даго지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는데 상당히 귀중한 문헌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피아노 페даго지 대학원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 피아노 교수학 관련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결과 및 분석

연구대상으로 수거된 총 98개의 국내 피아노 페даго지 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주제를 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연구주제어 대분류

연구주제 - 대분류	빈도수 (N)	총 186개의 연구주제 코딩 중 %
음악교수법 및 학습이론	59	31.72
피아노교수문헌/레퍼토리	50	26.88
음악성	18	9.68
피아노커리큘럼개발	18	9.68
피아노테크닉	17	9.14
피아노학습자	9	4.84
피아노페даго지훈련(Discipline)	7	3.76
피아노연주	4	2.15
피아노교사	3	1.61
테크놀로지	1	0.54
전체합계	186	100.00

연구주제어를 대분류 그룹으로 살펴보면 ‘피아노지도를 위한 음악교수법이나 학습이론’에 관련된 연구가 31.72%(N=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는 피아노 교수문헌에 관한 연구가 26.88%(N=50)으로 빈번히 연구되었다. 그 외에 피아노테크닉(9.14%), 음악성(9.68%), 연주(2.15%), 피아노학습자(4.84%), 피아노교사(1.61%), 테크놀로지(0.54%), 피아노지도커리큘럼(9.68%), 학원운영(3.76%) 등에 관한 주제어가 연구되었다. 이 장에서는 각 주제별로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연구주제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음악교수법 및 학습 이론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어는 ‘피아노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음악교수법과 학습이론’에 관련된 것으로, 복수응답으로 코딩된 연구주제어 총 186개 중 31.72%의 학위 논문에서 주제어로 가장 빈번히 연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아노 지도에 적용할 수 있는 ‘음악교수법이나 학습이론’이 포함하는 범주는 상당히 넓다. 피아노 지도전략, 지도철학, 교수접근법(학생중심학습 혹은 교사 중심학습 등) 음악교수법(코다이, 오르프 등), 그리고 그 외의 교육학이나 교육심리학 등에서 연구되는 학습이론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Meichang, 2010).

<표 2>의 ‘음악교수법 및 학습이론’으로 사용된 소주제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연구에서는 ‘김영숙의 통합이론’을 주제어로 하는 연구가 가장 높은 빈도수(N=22)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Kim’s 통합 피아노교수이론에 근거한 유아피아노 지도방안’(권은경, 2008), ‘초급 피아노 지도에서 예술적 청음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 연구: 김영숙 통합이론에 근거하여’(김경숙, 2006) 등, ‘김영숙의 통합이론’은 지난 10년 동안 경원대학교 대학원에서만 총 22편이 편중되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특정 대학에서 한 학습이론이 편중되어 발표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본 연구 대상으로 수거된 총 98편의 피아노교수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들 중 절반을 차지하는 50편의 논문이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발표되었고 또 이들 50편의 논문 중 22편에서(44%) ‘김영숙 통합이론’ 또는 ‘Kim’s theory’를 연구주제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

온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그 외에 ‘고든교수법’ (N=10), ‘달크로즈 교수법’ (N=7), ‘산도르교수법’ (N=5), ‘코다이교수법’ (N=3), ‘그룹피아노교수법’ (N=3), ‘브루너교수이론’ (N=2), ‘페이스교수법’ (N=1), ‘오르프교수법’ (N=1), ‘피아제인지발달이론’ (N=1), ‘브루저교수법’ (N=1), ‘번스타인교수법’ (N=1) 등이 연구주제로 다루어졌다. 고든의 학습이론과 달크로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교육에 관한 연구주제 각 10편과 6편도 모두 경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그 외에 코다이나 오르프와 같은 대표적인 음악교육학자의 교수법, 브루너나 피아제의 학습이론이외에, 페이스, 산도르, 브루저, 번스타인과 같은 피아노 페даго지의 교수법을 연구주제로 다루는 논문들도 드물지만 조사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음악교수법이나 학습이론들이 피아노교수학전공 학위논문의 연구주제로 다루어진 점은, 피아노교육이 다른 아닌 음악교육의 한분야로서 인식되어진 것을 의미한다. 음악교육에서 연구되어지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주제들이 피아노교육에서 공유되어 연구되어진다면 피아노교수학이 우리나라에서 학문적으로 뿌리내려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표 2> 음악교수법 및 학습이론의 세부분류

음악교수법 및 학습이론의 세부항목	빈도수 (N)	음악교수법 및 학습이론의 세부항목 %	총 186개의 연구주제 코딩 중 %
김영숙 통합이론	22	37.29	11.83
E. Gorden의 학습이론	10	16.95	5.38
J. Dalcroze 교수법	7	11.86	3.76
G. Sandor 교수법	5	8.47	2.69
Z. Kodaly 교수법	3	5.08	1.61
Group piano 교수법	3	5.08	1.61
J. Bruner의 교수이론	2	3.39	1.08
R. Pace 교수법	1	1.69	0.54
자기조절능력 학습이론	1	1.69	0.54
C. Orff 교수법	1	1.69	0.54
J. Piaget 인지발달이론	1	1.69	0.54
M. Bruser 교수법	1	1.69	0.54
S. Bernstein 교수법	1	1.69	0.54
Arts Propel 교수법	1	1.69	0.54
총	59	100.00%	31.72%

2. 피아노교수문헌/레퍼토리

다음으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 연구주제어는 ‘피아노 교수문헌’으로 복수응답으로 코딩된 연구주제어 총 186개 중 26.88%(N=50)을 나타내었다. 메이창(2010)은 피아노교수문헌을 피아노지도에 활용되어 지는 다양한 피아노문헌, 자료, 교재, 작품, 스타일,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로 정의하고 있다. ‘피아노 교수문헌’을 대주제로 한 후, 중분류와 소분류로 세부 항목을 조사해본 결과, 총 50개의 대분류 코딩 중, ‘피아노 레퍼토리 작품분석’은 78.0%(N=39), ‘피아노 교재분석’은 20.0%(N=10)로 중분류되었다. 다시 이들 중분류 항목을 시대별로 그리고 교재 명 별로 소분류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피아노 교수문헌의 세부분류

피아노 교수문헌의 중분류		피아노 교수문헌의 소분류		
교수문헌 분류	시대별	빈도 수	레퍼토리의 세부항목 %	총 186개의 연구주제 코딩 중 %
	교재별			
레퍼토리-작품분석	바로크시대	4	10.26	2.15
	고전시대	14	35.9	7.53
	낭만시대	8	20.51	4.30
	20세기	13	33.33	6.99
	총	39	100.00	20.97
피아노-교재분석	어드벤처	4	40.00	2.15
	바이엘	1	10	0.54
	베스틴	1	10	0.54
	클라비어	1	10	0.54
	소나티나	1	10	0.54
	기타	1	10	0.54
	총	10	100.00	5.38
기타(째즈 등)	.	1	100.00	0.54
총		50	100.00	26.88

‘레퍼토리 작품분석’은 총 39개의 코딩 중 고전시대 14개(35.90%), 20세기 13개(33.33%), 낭만시대 8개(20.51%), 그리고 바로크시대가 4개(10.26%)가 코딩되었다. ‘피아노 교재분석’을 살펴보면, 초급피아노 교재로

널리 알려진 어드벤처, 바이엘, 베스틴, 클라비어 등과 중급교재로 널리 사용되는 소나티나곡집이 연구주제로 활용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현재 피아노교사들이 관심 있어 하는 교수문헌 레퍼토리가 무엇인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 피아노 페다고지전공 대학원 학위논문의 연구주제 선택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비록 작품의 수준이 초급, 중급 혹은 상급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난이도의 악곡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원에서의 레퍼토리 연구는 주로 작품분석에 치우쳐져 있다는 사실이다. 몬텐돈(1998)과 메이창(2010)의 선행연구에 있어서는 피아노 작품분석에 해당되는 연구주제는 아예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피아노 페다고지에 관련된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주제의 심도 있는 연구대상들만을 그들의 연구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 대학원에서 발표되고 있는 피아노레퍼토리 관련 작품분석의 대다수는 일반음악대학원 피아노연주 전공생들이 학위논문으로 발표하는 졸업연주 레퍼토리 작품 중 한 두 작품을 음악학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아노 문헌을 음악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의미가 약하고 피아노 교육에서 그 가치가 적다는 주장은 절대 아니다. 다만 피아노 페다고지가 피아노 교육을 보다 과학적이고 예술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학문인만큼, 피아노 페다고지전공 학위논문이 일반 피아노 연주전공 석사학위 논문에서 다루는 연구주제와 방법과 굳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표 3> 피아노 교수문헌의 세부분류에서 제시된 연구주제 이외에 세부 연구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중급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교재나 레퍼토리에 관한 교수문헌연구를 할 경우, 학습자의 연령이나 특성을 세분화한 연구주제가 파생되어 질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단순히 초급 혹은 중급학습자가 아닌, 미취학 아동을 위한 피아노 교재 및 병행 교재, 일반 초급용 피아노 교재, 초급병행 독주곡집/양상블곡집/이론곡집, 성인을 위한 초중급 교재, 비피아노전공 음대생을 위한 클래스피아노교재, 비음대생을 위한 성인그룹피아노를 위한 교재, 중급학생을 위한 교수문헌/독주곡집/양상블곡집 등이 연구 가능하겠다.

3. 음악성

다음으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 연구주제어는 ‘음악성(musicianship)’으로 복수응답으로 코딩된 연구주제어 총 186개 중 9.68%(N=18)을 나타내었다. ‘음악성’이란, 독립적인 음악인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식, 이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능력을 말한다. 피아노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단순히 피아노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청음, 전조, 문헌, 초견, 앙상블, 반주, 즉흥연주, 작곡, 감상, 표현, 음악이론 및 음악사 등과 같은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 4> 음악성의 세부 분류

음악성의 중분류	빈도수(N)	연구주제- 음악성의 세부항목 %	총 186개의 연구주제 코딩 중 %
청음	4	22.22	2.15
화음넣기	4	22.22	2.15
초견	3	16.67	1.61
포괄적인 음악성	2	11.11	1.08
리듬	2	11.11	1.08
즉흥연주	2	11.11	1.08
음악적 창의성	1	5.56	0.54
총	18	100.00	9.68

<표 4>를 살펴보면, 청음(N=4, 22.22%), 화음넣기(N=4, 22.22%), 초견(N=3, 16.67%), 포괄적인 음악성(N=2, 11.11%), 리듬(N=2, 11.11%), 즉흥연주(N=2, 11.11%) 및 음악적 창의성(N=1, 5.56%) 순으로 연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위의 연구주제를 연구제목에 포함하고 있는 예시를 살펴보면, ‘창의적인 즉흥연주를 위한 피아노 교수방법’(강명희, 2008), ‘음악성 개발을 위한 초급 피아노 교육의 작곡 교재 내용 연구’(김세화, 2005) 등이 있다. <표 4> 음악성의 세부 분류에서 제시된 연구주제 이외에 추가로 학습활동을 제안하면, 피아노 학습을 통한 앙상블, 듣고 연주하기, 암보, 전조, 음악스타일, 반주만들기, 신체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개발이 가능하겠다.

4. 피아노커리큘럼개발

‘피아노커리큘럼개발’을 연구주제어로 갖는 논문은 복수응답으로 코딩된 연구주제어 총 186개 중 9.68%(N=18)을 나타내어 ‘음악성’을 주제어로 갖는 연구수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피아노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주제 그룹에서는 구체적인 피아노지도나 프로그램의 사례, 레슨비, 레슨지도방안, 피아노레슨의 운영과 조직, 교재자료의 선택, 평가에 대한 연구주제를 포함하고 있다(Meichang, 2010).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코딩된 18편의 논문은 예외 없이 레슨지도방안 개발만을 연구주제로 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맥도웰의 숲속의 정경 Op. 51의 악곡분석과 지도방안’(황연숙, 2003), ‘초급학생을 위한 이상적인 피아노 레슨 방안: Piano Adventure를 중심으로’(손승순, 2010) 등이 그 예이다.

이 연구주제 결과를 통하여 제안하는 바는, 피아노 커리큘럼 개발에 관한 연구주제는 실제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지도하는데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주제이자 방법인 만큼, 피아노 지도방안 개발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구체적인 피아노지도나 프로그램의 사례나 실제, 피아노레슨의 운영과 조직, 교재자료의 선택, 그리고 평가 등 보다 다양한 연구주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5. 피아노테크닉

피아노테크닉 주제 그룹에서 연구되는 내용은 건반에서의 기본 연주기술들, 손가락의 민첩성, 힘, 독립성, 손목과 팔의 메카니즘, 상체의 자세, 다이내믹, 페달링, 트릴, 반복음 연습, 스케일, 그리고 에튜드 등과 같은 피아노 연주의 기술적인 능력과 지식 등에 관한 것들이다(Meichang, 2010). 186개의 연구주제 코딩 중, 9.14%(N=17) 코딩 율을 나타낸 ‘피아노테크닉’에 관련된 연구 주제어를 조사하여 세부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연주기술에 관한 연구가 52.94%(N=9)로 많았고 그 외에 페달, 운지법, 연주자세 등에 관한 연구주제가 다루어 졌다. 이 중 가장 많

은 응답을 나타낸 기본연주기술(N=9)에 관한 소분류를 살펴보면, 총 9개의 연구 중 66.56%의 연구가(N=6, 전체 연구 중 3.23%) 산도르 가 제시하는 피아노 연주 테크닉을 연구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그 외에 핑크(N=1), 번스타인(N=1) 등이 제시하는 문헌을 바탕으로 피아노 연주 테크닉을 연구하였다.

<표 5> 피아노테크닉의 세부 분류

피아노테크닉의 중분류	빈도수 (N)	피아노 테크닉 세부항목 %	총 186개의 연구주제 코딩 중 %
연주주법	9	52.94	4.84
페달	4	23.53	2.15
기타	2	11.76	1.08
운지법	1	5.88	0.54
연주자세	1	5.88	0.54
총	17	100.00%	9.14%

6. 피아노학습자

‘피아노 학습자’에 대한 연구주제 그룹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성별, 연령, 문화 그리고 신체적인 차이에 따른 다른 피아노 교수법 및 피아노 교재사용에 대한 연구, 피아노 학습에 있어서 학생의 신체적, 인지적, 학습적, 정서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성의 발달 등을 연구 내용으로 한다(Meichang, 2010). 총 186개의 연구주제 코딩 중, 4.84%(N=9) 코딩을 나타낸 ‘피아노 학습자’에 관련된 연구주제를 조사한 결과, 피아노 학습자의 성격유형과 심리에 따른 피아노 지도 방법 혹은 피아노 학습자의 음악적 지능 등을 연구주제로 택한 논문들이 드물게 조사되었다<표 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격유형에 따른 피아노 학습형태와 지도연구: MBTI를 중심으로’(김효영, 2003; 박일진 2008), ‘MMTIC 기질별 학습스타일에 따른 피아노 교수법 적용 연구’(이정연, 2009), ‘하워드 가드너의 음악적 지능에 따른 피아노 지도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양혜경, 2010)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이 주제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주로 교육

심리학에서 다루는 학습 이론들을 피아노교육에 연관시킴으로써 다양한 연구주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단순한 문헌연구에서 그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과학적인 연구방법이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피아노 학습자의 세부 분류

피아노 학습자의 중분류	빈도수 (N)	피아노 학습자의 세부항목 %	총 186개의 연구주제 코딩 중 %
피아노 학습자의 성격유형	6	66.67	3.23
피아노 학습자의 심리	1	11.11	0.54
피아노 학습자의 음악적 지능	1	11.11	0.54
기타	1	11.11	0.54
총	9	100.00	4.84

7. 피아노페다고지 훈련

‘피아노 페다고지 훈련’에 관한 주제 그룹에서는 피아노 교육의 목적과 목표, 철학; 페다고지의 역사 및 연구; 그리고 피아노 교육과 음악교육 및 타교과목의 교육간의 관계를 다루는 주제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Meichang, 2010). 본 연구에서 수거된 ‘피아노 페다고지 훈련’ 대주제에 속하는 7개 연구(3.76%)의 코딩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코딩은 ‘피아노학원 및 음악경영’을 주제로 다룬 5편의 논문이며 이들은 모두 수원대학교 피아노 페다고지 대학원에서 편중되어 발표되었다(김명숙, 2010; 최연주, 2009; 박영옥, 2009; 김명숙 2009; 박혜진, 2009). 그 외에 1편은 ‘F. Couperin으로 부터 S. Bernstein까지 교수학의 역사와 교육철학’(김병은, 2004)을 다루고 있다. 아직 이 주제분야는 우리나라 피아노 페다고지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하여 제안하는 바는 첫째, 한 세기 전 미국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피아노교육이 지난 100년 동안 이루어낸 역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며 그 성과를 정리하고 개선점을 고찰해내는 연구가

가능하겠다. 둘째, 음악교육에서는 활발히 연구되어진 음악교사들이 갖춰야 할 철학적인 배경에 관한 문헌 연구가 피아노 교육에도 적용되어 피아노 교사들이 구체적인 지도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는 문헌 연구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 기악음악교육으로서 피아노교육이 언어, 역사, 미술 등 타교과목 교육 간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도 이루어진다면, 피아노 교육의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8. 피아노 연주

‘피아노 연주’에 관한 주제그룹은 일반적으로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 심리학적, 의학적, 신경학적,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점들을 다루고, 그 외에 무대공포, 암보, 피아노 연주 평가, 예를 들어 급수제도, 콩쿠르, 뮤직페스티벌에 관한 주제들을 연구 내용으로 한다(Meichang, 2010). 본 연구에서 수거된 연구대상의 학위논문에서는 무대공포(고현숙, 2010), 암보(곽지현, 2006), 장식음연주법(박미성, 2003) 등에 관한 총 4편(2.15%)의 연구만이 발표되었다. 이 결과가 제시하는 바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의 양적인 측면에 비해, 피아노 연주에 관한 질적인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피아노연주에 있어서 수반되는 심리학, 신경학적,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점 등에 관한 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연주가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피아노 연주를 수행해내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우리 음악교육계에 난무하고 있는 피아노 콩쿠르의 교육적인 효과나 준비사항, 우리나라의 독특한 유형의 피아노입시제도, 연주평가, 급수제도 등에 관련된 연구가 조만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9. 피아노 교사

‘피아노 교사’에 관한 주제그룹은 일반적으로 피아노교사 발전을 위한 재교육, 만족도, 교사준비과정, 교사경력개발, 지도스타일, 전문성개발, 인

턴십 프로그램, 스튜디오에서의 피아노교사, 자유업으로서의 피아노교사, 학원이나 학교에 재직하는 피아노교사, 전문가로서의 석사학위 이상의 페다고그 등에 관한 주제들을 다룬다(Meichang, 2010). 외국에서는 이 주제에 관하여 이미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만을 살펴보면, ‘통합피아노교수이론에 의한 초급과정 피아노 교사의 실기 재교육 지도방안 연구’(홍미정, 2008), ‘앤드라고지와 통합피아노교육이론에 의한 성인 피아노 교사 재교육 및 학습과정 연구’(김진, 2006)를 포함한 단 3편만의(1.61%) 연구가 이루어진 실정이다.

‘피아노교사’에 관한 연구주제 역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피아노교육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피아노교사의 재교육에 대한 주제도 대학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위과정과 출판사와 같은 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비교를 통한 장단점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사재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다. 특히 피아노교사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정완규, 권수미(2008a, 2008b)의 ‘우리나라 피아노 페다고지 대학원 교과과정 비교조사 연구’에서 지도실습 교과목 개설과 운영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그 외에 피아노교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피아노 교사로서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피아노 교사에 대한 대우 등 현실에 적재해 있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0.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에 관한 주제그룹은 피아노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크놀러지들, 예를 들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청각 자료(IPod, DVD, CD, MP3, MP4) 등의 활용; 컴퓨터를 활용한 피아노지도;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피아노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신디사이저나 디지털 피아노; 그리고 인터넷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아노 교육용 사이트 연구 등 20세기 후반부터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그 주제의

범위와 활용이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테크놀러지'에 관한 연구주제는 실제 우리나라 피아노 교육 연구에서 가장 낮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N= 1, 0.54%). 유명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피아노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의 기성세대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교육을 받을 20-30년 전에는 이와 같은 기술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피아노를 학습하는 학생들도 변해가고 있다. 컴퓨터 테크놀러지 노출이 많은 어린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방법이 변해가는 만큼, 피아노를 지도하는데 있어서도 세상의 변화에 최소한의 순응을 하며 다양한 지도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이 처음으로 개설된 1998년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 대학원 졸업생들이 학위 이수과정으로 발표한 논문들의 연구 주제들을 조사해 봄으로써,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 주제의 유형을 분석하고 앞으로 한국 피아노 페다고지학계가 나아가야 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국내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 대학원 총 9개교 10개 대학원에서 지난 2000년 이후부터 2010년 12월 현재까지 발표된 석사학위 논문 총 98개를 수거하였다. 연구주제 분류를 위하여 메이창(2010)이 지난 50년간 미국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 대학원에서 발표한 학위논문의 연구주제와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연구주제 분석목록을 활용하였다. 각 논문의 연구자가 지정한 주제어와 문헌연구에 사용된 주제어를 아래 10개의 연구주제어에 복수로 코딩하며 분류하였더니 총 186개의 연구가 코딩되었으며 이들을 연구주제 그룹별 빈도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음악교수법 및 학습이론; 2. 피아노교수문헌; 3.

음악성; 4. 피아노커리큘럼개발; 5. 피아노테크닉; 6. 피아노학습자; 7. 피아노페다고지훈련; 8. 피아노연주; 9. 피아노교사; 10. 테크놀로지.

위의 10개 연구주제 그룹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음악교수법 및 학습이론’ 그리고 ‘음악성’ 주제 그룹의 연구에서는 음악교육에서 연구되어지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주제들이 피아노교육에서 공유되어 연구되면 피아노 페다고지가 학문적으로 뿌리내려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을 할 수 있었다.

‘피아노교수문헌’과 ‘피아노커리큘럼/프로그램’ 주제그룹 연구에서는 초급수준의 학생들을 위한 교재분석이나 지도방안 개발에서 국한시키지 말고, 좀 더 시야를 넓혀 다양한 연령과 특성을 갖는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문헌 개발과, 피아노지도나 프로그램 사례, 피아노연주평가, 레슨비 운영 등으로의 연구주제 확장이 필요하다. 그 외에 ‘피아노학습자’, ‘피아노 교사’, ‘피아노연주’, ‘피아노페다고지 훈련’, ‘테크놀로지’ 주제 그룹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피아노페다고지 연구에서는 아직은 생소하고 연구가 절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 대학원 학생들이 학위 논문을 수행하는데 부딪치게 되는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아마도 연구주제의 선정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공 관련 다양한 문헌을 연구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피아노 페다고지 학문의 역사가 짧다보니, 제대로 연구되어진 선행연구를 찾는 것조차 용이하지 않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새로운 주제의 개발보다는 제한된 선행연구이지만,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바탕으로 유사한 주제의 연구들을 계속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원에서의 논문지도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게다가 논문 지도교수마저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이 아닐 경우, 이 분야의 다양한 주제 개발의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각 대학원마다 지도교수의 전문성에 따라 연구주제가 특성화 혹은 편중되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주제의 개발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연구의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의 발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좁은 시야를 넓혀 학문적으로 다양한 연구주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제공하며 이끌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지도 교수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피아노 페даго지 전공 9개 대학 10개 대학원에 종사하는 전임 교원의 수는 단지 3명에 불과하다. 이런 열악한 논문지도 상황에서 논문의 질적 수준을 논의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60여 년간 우리나라 대부분 음악대학 피아노학과 혹은 피아노전공의 설립목적이 전문 피아노연주자 양성인 교육현실에서 피아노 페даго지 전공이 설립된 것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이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조차 찾기 어려운 연구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피아노페даго지 대학원에서 일구어 낸 연구의 결과는 아직은 미흡하지만 나름 의미 있고 값진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년 동안 피아노 페даго지를 도입하고 뿌리내리기에 노력을 하였다면, 이제부터는 피아노 페даго지가 학문적으로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 방안은 연주력 향상과 함께, ‘논문연구(Research)’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피아노 연주능력이 부족한 피아노교사가 초급교재 분석과 지도방안만을 개발하는 것이 피아노 페даго지가 아니다. 피아노 페даго지에서 다뤄져야 할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주제가 무엇인지 본 연구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었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피아노 연주자들의 실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피아노 교육자들의 지도와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를 희망해본다.

참고문헌

- 정완규, 권수미a (2008). 우리나라와 미국 대학원에서의 피아노 교수학 전공 운영 및 교과과정 비교 연구. *음악교육연구*. 35, 107-150.
- 정완규, 권수미b (2008). 우리나라 대학원 석사과정 피아노교수학 전공개설 및 운영에 대한 기초조사연구. *이화음악연구*. 제 12집 2호, 27-62.

- Bach, C. P. E. (1949). *Essay on the True Art of Playing Keyboard Instruments* (W. J. Mitchell, Ed. and Trans.). New York: W. W. Norton. (Original work published 1753 and 1762).
- Bastien, J. (1977).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2nd ed. Park Ridge III.: General Words and Music Co..
- Breithaupt, R. M. (1909). *The Natural Piano Technique* (J. Bernhoff, Trans.). Leipzig: C. F. Kahnt Nachfolger. (Original work published 1905 and 1907).
- Clark, F. (1992). *Questions and answers: Practical advice for piano teachers*. Northfield, IL: The Instrumentalist.
- Clementi, M. (1973). *Introduction to the Art of Playing the Pianoforte*. New York: Da Capo Press.
- Czerny, C. (1839). *Complete Theoretical and Practical Piano Forte School, Op. 500*. London: R. Cocks.
- Grausam, R. (2005). *A survey of piano pedagogy curricula in selected United States music conservatories and performance-oriented music uni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Hummel, J. N. (1828). *A Complet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urse of Instructions on the Art of Playing the Piano Forte Commencing with the Simplest Elementary Principles and Including Every Information Requisite to the Most Finished Style of Performance*. London: T. Boosy.
- Lyke, J., Enoch, Y., & Haydon, G. (1987). *Creative Piano Teaching* (2nd ed.). Champaign, IL: Stipes Publishing Co.
- Montandon, M. I. (1998). *Trends in piano pedagogy as reflected by th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Conference on Piano Pedagogy (1981-1995)*.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klahoma.

- Meichang, L. (2010). *Principal Themes and Intellectual Structure of Research in Piano Pedagogy: The Mapping of Doctoral and Masters' Research*. Ph.D. diss. Hong Kong: Hong Kong Baptist Univ. (Doctoral Dissertation,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 Ortmann, O. (1925). *The Physical Basis of Piano Touch and Tone: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the player's touch upon the tone of the piano*.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and Co.
- Schons, S. M. (2005). *Piano teachers' attitudes about piano pedagogy course top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klahoma.
- Uszler, M. (1992). *Research on the teaching of keyboard music.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A project of the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Ed. Colwell, R.). New York: Schirmer Books.
- Uszler, M., Gordon, S., & Mach, E. (1991). *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 New York: Schirmer Books.
- Uszler, M., Gordon, S., & McBride Smith, S. (2000). *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 (2nd ed.). New York: Schirmer Books.
- Uszler, M., & Larimer, F. (1984). *The piano pedagogy major in the college curriculum. Part I: The undergraduate piano pedagogy major*. Princeton: National Conference on Piano Pedagogy.
- Uszler, M., & Larimer, F. (1986). *The piano pedagogy major in the college curriculum. Part II: The graduate piano pedagogy major*. Princeton: National Conference on Piano Pedagogy.

<부 록>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피아노페даго지 전공>

- 강은선 (2008). 초급피아노 페달 테크닉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청각지각능력 (오디에이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고정민 (2005). 중급 피아노 전공자의 오디에이션을 통한 테크닉 향상 지도방안: Mozart의 <Variations, K.573>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공순금 (2004). Bela Bartok의 'Rumanian Folk Dances'에 나타난 Gyorgy Sandor의 테크닉 유형 분석의 교수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권은경 (2008). Kim's 통합피아노교수이론에 근거한 유아피아노 지도방안: MY FIRST PIANO Adventure 교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경숙 (2006). 초급 피아노 지도에서 예술적 청음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 연구: 김영숙 통합이론에 근거하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병은 (2004). 시대의 변화를 통해 본 피아노 교수법에 관한 연구: Francois Couperin으로 부터 Seymour Bernstein까지 55명의 교수법 교육철학.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성은 (2008). Kim's 통합피아노교수이론에 근거한 중급 피아노 연주 지도 방안 연구: 예술적 청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세화 (2005). 음악성 개발을 위한 초급 피아노 교육의 작곡 교재 내용 연구: 김영숙의 통합 이론과 음악 교육 이론에 근거하여, 만9세-만11세 아동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신혜 (2003). 한국의 중급 피아노 교육 실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 이론 및 피아노 교수학에 근거하여. 석사학위 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안아 (2008). 초급과정에 필요한 테크닉 지도방안 연구: Karl Czerny의 Op.139, Etude 중에서 No.1, 4, 5, 12, 13, 17, 19, 44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연숙 (2004). 리듬감각과 청음감각 향상을 위한 피아노 교육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정원 (2006). 초급 피아노 교육의 반주법 지도방안: Edwin E. Gordon의 오디에이션과 김영숙의 예술적 청음에 근거하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지영 (2005). 달크로즈 이론에 근거한 예비 피아노 클래스 지도 방안 : 30-42개월 유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진 (2006). 앤드라고지와 통합피아노교육이론에 의한 성인 피아노 교사 재교육 및 학습과정 연구: 30-40대의 전공자·비전공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김향경 (2006). 피아노연주에서의 긴장심리 완화방안 연구: 프로이트와 에릭슨의 정신역동 이론에 근거하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김현정 (2006). 달크로즈 교수법에 의한 유아의 음악개념 지도 방안 및 실제적 접근: 만 5-6세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김현지 (2008). 에니어 그램 성격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피아노 교수법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김현희 (2008). 초급 교재를 활용한 학습 지도 방안 연구: Kim's 통합 피아노교수이론에 근거하여 피아노 어드벤처 레슨 1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김희경 (2004). 리듬감각 향상을 위한 실제 접근 방안: 7-9세 아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노기향 (2007). 초급 피아노 교육에서의 청음 지도 방안 연구: 고든의 오디에이션과 김영숙의 예술적 청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성애 (2009). 초급 피아노 교육과정의 반주법 지도안 연구: 김영숙의 통합 피아노 교수 이론에 근거하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은정 (2007). 죠르지 산도르의 테크닉 이론에 근거한 스케일 연습곡 지도방안 연구: Moszkowski의 Op.72, 15 Virtuosity Studies 중에서 No. 1, 2, 5, 6, 12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영주 (2005). 유아를 위한 피아노 교수 방안 연구 및 실제적 접근 :김영숙 교수의 통합이론에 따른 만4-5세 유아의 초급 피아노 1년 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지영 (2005). 리듬감각능력의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신체사용에 대한 지도방안 연구: Schumann의 <Papillons, Op.2>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진희 (2006). 초급 피아노 교재를 사용한 지도방안 연구: 「피아노 어드벤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초희 (2008). 창의력 향상을 위한 전인적 교수 방안 연구: 초급 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백혜경 (2004). 중급 피아노 전공자를 위한 예술적 청음훈련의 실제적 활용방안: 고든의 연계 학습 이론과 김영숙의 통합이론에 근거하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서은하 (2008). 초급피아노 교육과정의 독보력 지도 방안 연구: Kim's 통합피아노교수이론에 근거하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서현선 (2003). 기본 테크닉 유형학습을 위한 교수법 연구: L. v. Beethoven Piano Sonata Op. 2 No. 3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선은경 (2004). 예술적 청음감각 향상을 위한 피아노교수법 연구: 체르니 30번 연습곡(op.849)중 제1번, 제2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성하영 (2007). G. Sandor의 피아노 테크닉 유형 분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R. Schumann, 「Symphonic Etudes, Op.13」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오진희 (2007). G. Sandor의 기본 테크닉 패턴을 적용한 피아노 교수법연구: Bela Bartok의 <미크로코스모스> 중 No.140, No.141, No.146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오현영 (2008). 미취학 아동의 음악 교육 및 피아노 지도방안 연구: 코다이 교수법을 적용한 전래동요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유미경 (2008). 초급 피아노 교육을 위한 그룹 레슨의 실제: 개인레슨과 그룹레슨 병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유성희 (2006). 성격 유형에 따른 피아노 학습형태와 지도방안 연구: 애니어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윤정선 (2007). 조르지 산도르의 유형별 테크닉에 근거한 초급 피아노 테크닉 지도방안 연구: 만6세 아동을 위한 1년 지도방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미선 (2006). 2-3세 유아와 엄마를 위한 피아노 예비과정 지도방안 연구 및 실제: 김영숙 교수의 통합 피아노 교수이론에 따른 실제 교습 1년 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상희 (2006). 초급 피아노 교육의 독보 지도방안: 오르프와 코다이 이론에 근거한 5-7세 아동의 리듬과 솔페이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소윤 (2006). 체르니 40번에 나타난 테크닉 유형의 효율적인 지도 방

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정민 (2009). 이그나즈 모셀레스(Ignaz Moscheles) 에튀드의 테크닉 지도방안 연구: 조르지 산도르(G. Sandor)의 다섯 가지 기본 테크닉 패턴에 근거하여. 석사학위 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주연 (2004). 초견 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적 지도방안 연구: 음악교육 이론을 중심으로(7-9세 아동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혜미 (2008). 종합적 음악성 개발을 위한 초급 피아노 교육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 연구: 피아노 어드벤처 1급 교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임현수 (2007). 재즈어법을 활용한 리하모니제이션 연구와 실제 피아노 반주에의 적용.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조은숙 (2005). 대상관계이론에 근거한 정서 불안 학생의 심리적 이해와 그에 따른 피아노 지도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조주희 (2004). 초급 피아노 교육을 위한 즉흥연주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최윤영 (2006). 아동기 피아노 교육의 지도방안 및 연습과제에 대한 고찰: 통합이론과 자기조절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최인선 (2008). 영유아를 위한 피아노학습 이전단계 지도방안: 3,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최주혜 (2005). 초급 피아노 페달 교수법 연구: Edwin E. Gordon의 오디에이션과 김영숙의 예술적 청음에 근거하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하지운 (2004). 성격유형에 따른 피아노 교수법 연구: 애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홍미정 (2008). 통합피아노교수이론에 의한 초급과정 피아노 교사의 실

기 재교육 지도방안 연구: 피아노 어드벤처 1-4급의 교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피아노페даго지 전공>

한아름(2010). 카발레프스키 중급 피아노작품 소나티나 Op.13 No.1의 교수학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피아노페даго지 전공>

권소연 (2010). 하이든 소나타 등 3곡에 대한 피아노 연주요령 연구: <하이든 소나타 제37번 D장조 Hob.16-37> <바르톡의 6개의 루마니안 댄스> <마흐 토카타 in e minor BWV914>,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수원대학교 음악대학원 피아노교수학과>

고애선 (2002). 체르니30번 연습곡의 분석 및 지도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김경화 (2002). 테크닉에의 효율적 접근: Chopin 연습곡 Op.10, No.4와 Op.10, No.8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김금화 (2002). J.S. Bach Invention의 이론적 분석과 교수법적인 접근을 위한 연주양식의 고찰,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김명숙a (2010). 음악 경영을 위한 인지적 도제 피아노 교수법의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김명숙b (2009). 성공적인 음악학원 경영을 위한 연구: 교육서비스 만족도 요인분석 활용,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김인 (2002). R.Schumann의 Album For the Young Op.68과 B. Bartok의 Mikrokomos에서 나타난 교수법적 접근양식의 고찰,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 남금희 (2004). 피아노 학습자를 위한 연주양식 및 테크닉의 연구: 낭만 시대 중급수준의 피아노 연습곡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 박영옥 (2009). 한국과 일본의 음악경영 비교 연구: 음악 학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 박혜진 (2009). 음악경영이 지역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 오정란 (2002). Pedalling에 대한 연구: Debussy 음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 임미경 (2002). 피아노 교사를 위한 베토벤 초기 소나타분석: Op.2/No.2, Op.2/No.3, Op.10/No.3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 지재은 (2002). 프로코피예프의 "어린이를 위한 음악 Op.65"의 작품 분석과 교육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 최연주 (2009). 음악경영을 통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 황보순 (2002) 피아노 초급 교재들의 비교 분석 연구: 바이엘, 베스틴, 클라비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피아노페даго지 전공>
- 고현숙 (2010) 청소년 피아노 연주자들의 무대 공포증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양혜경 (2010) 하워드 가드너의 음악적 지능에 따른 피아노 지도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윤여원 (2010) 초급피아노 페달링 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이정연 (2009) MMTIC 기질별 학습스타일에 따른 피아노 교수법 적용 연

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현혜경 (2010) R. Abramson의 Eurhythmics 지도법을 적용한 W. A. Mozart K 265 C장조 피아노 지도방안 고찰.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피아노페даго지 전공>

강명희 (2008). 창의적인 즉흥연주를 위한 피아노 교수방법.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강영미 (2009). 신체적 측면에 따른 피아노테크닉 연구-산도르, 번스타인, 핀크의 교수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강인희 (2009). 피아노 기초교육에 있어서의 멀티미디어 활용에 관한 연구-아동들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곽지현 (2006). 성공적인 피아노 연주를 위한 효율적인 암보학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고은아 (2006). 음악적표현을 위한 테크닉 교수법 연구: 초기 중급수준의 아동 학습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원지은 (2010). L. v. Beethoven Pedaling에 관한 지도방안 연구 : Beethoven Piano Sonata Op.31, No.2 in d minor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우승연 (2003). 피아노운지법 교수방안-Sergei Prokofiev의 어린이를 위하여 (Music for Children) Op. 65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정지윤 (2002). 효과적인 피아노연주를 위한 신체적 움직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황연숙 (2003). 맥도웰의 숲속의 정경 Op. 51의 악곡분석과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 노수화 (2009). 중급학습에 사용되는 소나티네곡집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일진 (2008). 성격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피아노지도방법.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진희 (2009). 우리나라 중급피아노과정에서 사용되는 학습 문헌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 양재경 (2008). Be'la Barto'k의 『Mikrokosmos』에 대한 피아노 교재로서의 가치.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 정은현 (2010). Arts Propel 이론을 적용한 피아노 지도법.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 조은새 (2008). J. S. Bach의 Invention과 Sinfonia Edition에 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한세대학교 피아노페다고지 대학원>

- 김효영 (2003). 성격유형에 따른 피아노 학습형태와 지도연구: MBTI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피아노페다고지대학원.
- 박미성 (2003). J.S.Bach의 꾸밈음 분석과 연주법 연구: 평균율 곡집 제 1-2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피아노페다고지대학원.
- 유경주 (2003). 피아노 기초과정의 그룹지도에 관한 연구: 초등 저학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피아노페다고지대학원.
- 윤정희 (2009). 피아노 중급 실용반주법의 효율적인 교육: 코드와 리듬의 단계별 활용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피아노페다고지대학원.
- 이혜림 (2004). 러시아 피아노 교본 「The Piano Books for the Young Musician」 Book I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피아노페다고지대학원.
- 정주희 (2010). 맥도웰 Op.39 <12개의 에튀드> 피아노 교수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피아노페다고지대학원.

황은하 (2003). 전공하지 않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새로운 피아노 교습법.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피아노페다고지대학원.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송승순 (2010). 초급학생을 위한 이상적인 피아노 레슨 방안: Piano Adventure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송진숙 (2010). Edward Alexander Macdowell 「숲의 정경 (Woodland Sketches), Op. 51」의 악곡 분석 및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우경 (2010). Ludwig van Beethoven의 《Bagatellen, Op.33》에 관한 피아노교수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은아 (2010). Pyotr Ilyich Tchaikovsky의 《Kinderalbum, Op.39》에 관한 피아노교수법적연구.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최경숙 (2010). A. Khachaturian 의 《Sonatina (1959)》에 관한 피아노교수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ABSTRACT

An Examination of the Master's Theses Research Topics for the Piano Pedagogy Majors

Kwon, Sum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incipal subjects of master's theses in piano pedagogy majors published by 10 graduate schools in Korea. In total, 98 master's theses were collect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database which is the biggest and most reliable database in Korea. The research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10 categories which was developed by Meichang(2010)'s research. The principal subjects those were most frequently dealt in the master's theses were as follows: 1. Methods and theory; 2. Repertoire; 3. Musicianship; 4. Piano curriculum & program; 5. Technique; 6. Learners; 7. Piano pedagogy discipline; 8. performance; 9. Teachers; 10. Technology. This study suggests that professional advice is inevitable as well as broad perspectives for surveying the various research subjects in piano pedagogy.

The following results are suggested for the direction that Korean piano pedagogy should proceed. First, if piano pedagogues combine the research subjects in music education and piano education, they will be able to develop various research subjects especially in 'methods & theory' and 'musicianship' area. Second, in the area of 'piano repertoire' and 'piano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study different age of students and in different learning styles beyond the beginning level of

students. Third, the following research subjects such as 'piano learner', 'piano performance', 'piano pedagogy discipline', and 'technology' have been rarely studied in Korean piano pedagogy. Even though those subjects are unfamiliar in Korea, it is essential to research in depth.

key words: Piano Pedagogy, Piano Teaching, Research Subject

투고일: 1월 31일, 심사(수정)일: 3월 14일(3월 24일), 게재확정일: 4월 13일